

“전두환 할아버지 학살자” 손자 폭로…오월단체 ‘환영’

“가족들 검은돈으로 호의호식”
900억 미납 추징금 환수 기대
“정의로운 일…진상규명 속도”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씨 일가의 호화 생활과 불법 행위 등을 폭로하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당사자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씨의 유가족이 직접 일가의 과오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불법적인 경로로 부를 모은 정황이 언급되면서 5·18 명예회복은 물론, 900억원이 넘는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새로운 단초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전두환 씨의 친손자 전씨의 SNS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해당 SNS에 자신이 발언하는 동영상과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가족사진 등을 연달아 공개했다.

전씨는 전두환 씨의 차남인 전재용씨의 아들로 확인됐다.

전씨는 지난 14일 “할아버지가 학살자라 생각한다.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라고 말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전 씨는 자신의 부친에 대해 “현재 미국 시민

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법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전도사라는 사기행각을 벌이며 지내고 있다”며 “이자가 미국에 와서 숨겨져 있는 비자금들 사용해서 걸으려는 선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악마의 짓을 못 하도록 도와달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작은 아버지이자 전두환 씨의 셋째 아들인 재만 씨에 대해 “현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와이너리는 정말 전문학적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전씨와 함께 찍은 사진, 전씨의 아내인 이순자씨가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영상을 함께 게시하기도 했다.

전씨 가족 가운데서 과오를 인정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검은 돈’을 언급, 부정축재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씨 앞으로 책정된 수천억 원 대 추징금의 환수 시급성도 재차 떠오른다.

앞서 전씨는 1997년 4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특별집행을 꾸려 환수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기준 1,279억여 원을 환

수, 현재 926억여 원이 남았다.

5·18 단체들은 사과 없이 떠난 전씨를 대신 해서라도 손자 전 씨가 과오를 인정하고 폭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역사의 죄인은 후손이 그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된다”며 “유족이 직접 부정축재 정황을 언급한 만큼 드러나지 않은 규모의 비밀 자산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으로 추징금 수사가 이뤄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인화 5·18기록관장은 “전두환 씨와 그의 아들도 안했던 것을 손자라도 과오를 인정하면서 폭로한 것은 요즘 세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묻은 공평과 정의로운 일이다”며 “5·18민주화운동이 현재진행형인 사건인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5·18 유족들은 지난 43년 동안 전씨 일가가 호의호식하는 모습에 울분을 터뜨렸다”며 “부정축재한 재산을 환수하지 못해은 정부도 원망해왔다. 이번 폭로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와 함께 추징금 환수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뉴욕의 한 회계법인에 근무 중이라고 밝혔던 전 씨는 현재 퇴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찬기 기자

북구청 공무원 절반 “업무 강도 세다”

‘초과근무·갑질 민원’ 부담 호소

최근 광주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번아웃’을 호소한 것(본보 2월 23일자 6면·2월 27일자 6면)과 관련해 공무원 2명 중 1명은 ‘업무강도가 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구청 직원 1,010명(본청 633명, 동·사업소 377명)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업무·복지·조직 문화 전반에 걸쳐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결과, 노동 강도를 묻는 질문에 55%(세다 43%·440명, 매우 세다 12%·122명)가 업무 부담이 크다고 답변했다.

‘보통이다’는 44%(442명), ‘약하다’ 응답은 1%(8명)에 불과했다.

근무 만족도에 대해서는 응답 공직자의 42%(426명)가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인 것

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40%(407명)인 반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은 18%(177명)에 그쳤다.

설문 응답자 중 41%(619명)는 ‘과다한 업무나 민원’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했다. 이어 의회와의 관계 23%(350명), 공모 사업 18%(274명), 동료와의 관계 12%(182명) 등 순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잦은 초과근무’와 ‘갑질 민원 처리’가 꼽혔다.

공모사업 관련 업무 고충으로는 응답 직원의 35%(175명)가 작성 과정이 어렵다고 답했다.

동료와의 관계(내부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관련 문항 응답 직원 304명 중 31%(94명)가 ‘과도하고 경직된 근무 분위기 조성’을 문제로 꼽았다. 구청 내 휴직자 증가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해소’가 73%(873명)로 가장 많았다. /최환준 기자

광주교육청, 학교 운동장·강당 전면 개방

광주시교육청이 시민에게 학교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한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149개 학교 강당과 207개 학교 운동장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과정 및 학교운동부 운영 등의 교육활동 침해나 안전이 우려되는 학교를 제외한 수치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시민들이 오후 5시 반부터 강당,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강당은 생활체육단체 등이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면 학교장이 지정한 시간 동안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이용가능하다.

출하면 학교장이 지정한 시간 동안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이용가능하다.

운동장은 학교장이 지정한 개방시간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으며 단체 이용시에는 별도로 사용승인신청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이용 시간 및 세부 사항은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설관리 및 시설공사로 인해 미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보완 조치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추가 개방한다. /황애란 기자

광주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 주의보

항생제 내성균 일종인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군종(CRE) 감염증 환자가 급증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올해 CRE 감염증 신고 건수는 1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건)보다 172.7% 늘어났다.

CRE 감염증은 2021년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다음으로 많이 신고된 법정 감염병이다.

2017년에 81건이었으나 2018년 132건, 2019년 182건, 2020년 381건, 2021년 343건, 지난해 48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70세 이상의 비중이 전체의 70%를 넘는다. CRE 감염증은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오염된 기구, 물품, 환경 등을 통해 전파되며 주로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접촉을 통해 발생한다. /조기철 기자



유실수 뭐가 좋을까? 15일 식목절을 맞아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산림조합 나무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감·대추·사과 등 유실수를 고르고 있다. /김태규 기자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광산구 하남동 (사무나) 3층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광주 광산구 수완동 (토지) ▶ 감정가 11억 → 최저가 11억
 북구 신안동 (6층상가) ▶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
 북구오치동 (주택)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5천
 남구월산동 (주택)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7천700만
 전남 장성군 북이면 (잡종지) 1,991평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010-2614-9801

전원주택 (1채) → 7,000만

(토지 분양 중) 장성댐5분, 광주 20분, (6m도로접)

- ① 세컨하우스
- ② 소형 주택
-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 ④ 주말 하우스 최고
-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

010-6670-9800

상가매매 (상무지구)

- ▶ 중심 상업지구 (유형적합)
-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 시세 - 10억
- ▶ 급매 - 7억 (용4억)

(보3천, 월수익 380만)